

새해 새 설계

나 동 군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경제 활력 위한 세정여건 조성”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 복지재정 확충 등으로 세정여건이 더욱 중요한 시기지만 성실 납세자 우대와 영세납세자·성실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세정여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세정현장 소통 활성화

중기·영세납세자 지원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전체의 창의성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나 청장은 출납수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다. 또 서로 돕고, 감싸주며 모두가 함께 가면서 발전하는 직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 국세청의 발전방안에 대해 나 청장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상생세정이 돼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나 청장은 “세수 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책임감을 갖고 광주청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헤아리는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충실해 납세자들로부터 ‘일등 광주청’, 일 잘하는 광주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청장은 전북 고창출신으로 전주교과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경기회복 기대감... 광주 백화점 모처럼 웃다

신년 첫 세일 신세계 6.4%, 롯데 8.0% 신장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역 주요 백화점들의 신년 첫 세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신장세를 보여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설 명절이 1월로 앞당겨진 것도 한몫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첫 정기 세일 매출이 전년 대비 6.4% 신장됐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19일 18일간 진행한 신년 첫 정기세일 매출이 전년 첫 정기세일 실적보다 신장한

이유로 식품(51%)과 생활(22%) 품목 등이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록한 데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까지 불황이 이어졌던 화장품(7.5%)과 구두(6.0%)를 비롯, 여성의류(2.2%) 등의 실적 증가도 이번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반면 액세서리(-0.3%), 남성의류(-6%), 아웃도어(-5.8%) 등 일부 장르는 매출이 떨어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8일간 진행한 신년 정기 바겐세일 매출이 지난

해 신년 정기세일보다 8.0% 이상 신장했다.

한우, 홍삼 선물세트 등 중심으로 한 식품 상품군 매출은 35% 신장했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가 포함된 축산 부문은 10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매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해외명품 매출도 점차 늘고 있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해외명품은 세일기간 중 27% 고신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송년 바겐세일 25%에 이어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년 보다 높은 기온으로 방한의류를 찾는 고객이 줄어 남성의류 4%, 여성 의류 0.8%에 그쳤다.

광영민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은 “이번 신년 세일 때 설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도 겹치면서 매출 호조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광주신세계는 신년 세일에 고객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상품 물량을 최대 30% 이상 확대했고, 각 브랜드별로 다양한 행사를 벌였던 것도 매출 신장의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말 선물세트 인기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집화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양말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구성된 실용적인 양말세트(3족)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작년 세종시 민간아파트 71% 지역 건설사가 공급

타지역에 총 2만1천가구

지난해 세종시에 지어진 민간아파트 10개 중 7개는 지역소재 주택 건설사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택건설사들이 전체에 빠진 지역 시장을 벗어나 활발한 외지진출활동을 펼친 것이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 도회가 내놓은 ‘2013년 지역주택시장 분석 및 2014년 주택경기전망’에 따르면 중흥건설, 호반건설, 골드클래스, 이지건설, 영무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지역건설사들은 지난해 세

종시와 아산테크노폴리스, 충북혁신도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타지역에 2만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호황세였던 세종시의 경우 민간공급물량의 71%를 지역 건설사들이 차지했다.

2009년 1만546가구를 기록한 뒤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2010년 700가구에 그쳤던 타지역 공급량은 2011년 지방부동산 회복경기를 타고 5000가구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1만5000가구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 사상 최대 공급량을 달성했다.

이는 지역주택건설사들이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역외 확보에 집중 투자해 지방분양시장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2만가구 이상의 타지역 공급량이 예상돼 지역건설사의 외지진출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지역건설사의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공급량은 인·허가 기준 8018세대였으며 실제 분양 물량은 5889세대에 그쳤다. 올해는 71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분양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임동희기자 exian@kwangju.co.kr

“수십년 지난 정보 작년 파기... 2차 피해 없을 것”

고객정보유출 카드3사 사장단 기자회견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의 NH농협카드 사장은 20일 서울 코리안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 부정 사용 등 고객 피해 전역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객 정보유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사장단 기자회견 문답 내용.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수십년이 지난 정보까지 마케팅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다.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타 법률에서 보유 기간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7월 안전행정부, 금융원 등에서 제정된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기했다. 당사에서 유출된 이후 추가 유통되기 전에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카드에 가입 안된 사람도 개인 정보 유출됐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카드를 한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탈퇴했거나 오래됐을 경우가 있다. 체크카드도 가지고 있을 수 있

는 만큼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

◇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비밀번호 별도 알고리즘에 의해 별도로 생성, 관리된다.

▲롯데카드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돼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일부 비대면 거래가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인증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정 사용은 대부분 차단된다.

▲카드 재발급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면 신장하는 고객만 재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합뉴스>

▲실제로는 CVC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 전수 발급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손경의 농협카드 분사장 -농협카드는 국민카드와 달리 은행과 분사되지 않았는데 은행 고객 유출은?

▲은행 고객 유출은 없다. 은행과 카드 서버가 다르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기간은. ▲여러가지 법이 중복된다. 금융거래 내용은 5년, 상환은 10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법한 다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

-고객의 정신적 피해 보상 대책은. ▲유출 정보가 유통돼서 스캠이 가거나 하면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

Table with 4 columns: 코스피지수 (1953.78 (+9.30)), 코스닥지수 (519.99 (+1.89)), 금리 (국고채 3년) (2.90% (+0.01)), 원·달러 환율 (1063.70원 (+4.00))

Advertisement for YONAMJA restaurant featuring Italian cuisine, menu items like steak and pasta,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2nd floor branch.

Advertisement for a traditional Korean clothing sale event, featuring a woman in Hanbok and details about the sale, including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